

## 히브리서 1 장

1.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레위기는 '레위인이 맡은 성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제목이 히브리서일까?

**대상이 히브리인이기:**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보면 문제가 생겼다. 박해를 견뎌야 했고 새로운 가르침에 적응도 해야 했다. 율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형식을 존중하던 이들이 교회의 예배 형식에서 오히려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책이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2.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구약이 그를 가리키고 있다(바울의 두 설교: 행 17:24-31: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르침, 행 13:17-41: '예수에 관한 설교를 행함' 왜 이렇게 다른가? 대상이 다르기 때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대상의 차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을 설명하려고 한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인간, 예수이지만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다.

3.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여러 시기, 여러 번), 여러 모양(=여러 방법)으로 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의 영감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는 자는 복되다!

4.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두 글자로 줄이면?

**말세:**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룩된 새로운 시대, 곧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날을 가리킨다(=신약시대). 이런 개념을 살려서 오늘을 말세지말(末世之末)이라고 하기도 한다.

5. 첫 문장(1-2)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말씀하셨으니'이다. 그러면 목적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그것을 전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으로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없다. 아니, 옛적에 하신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셈이다.

6. 예수는 만유의 후사, 모든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만물을 볼드시는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 위엄의 우편에 앉은 자이다. 결국은 어떤 분이라는 말인가?

**하나님:** 만유(의 후사 = 소유주), 모든 세계(의 창조자), 천사보다 탁월함(유대인들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생각함), 하나님 영광(임재, 속성)의 광채, 본체의 형상(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14:9), 만물의 주관자(=만물을 볼드시는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 < 추가 > 선지자, 시기, 모세(3:1-6)

7. 예수님의 특징 중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시 31:15)와 가장 밀접한 것은?

**만물을 볼드시는 자 = 만물의 주관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다. 교회에서만 힘을 쓰고 회사나 사회에서는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다.

8. 예수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둘로 요약한다면 1-3절은 ( )이고 4-14절은 ( )라고 말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약을 다수 인용하였다.

1) **선포:** 존재론적 탁월성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그냥 밀어붙인다.

2) **비교:** 천사와 만유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낸다.

9. 예수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과 대비시키는가?

**천사:**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대단한 존재이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니...

10. 정말 선한 선생님을 가리켜 천사표 선생님이라고 한다. 천사가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5):**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런 이름을 달고 추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히 반성해야 한다.

11. 예수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자.

**신분:** 만유의 주인(후사 = 상속자), 창조주(세계를 지으셨음)

**본질:** 하나님 (=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 만물의 관리자, 인도자(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볼드심), 구원자(죄를 정결케함) 하나님의 아들 (= 높은 곳에 앉으심, 천사보다 뛰어남,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12.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던데 느닷없이 맏아들이라니?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인가?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의 형이다(롬 8:9)

13.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란 언제인가? (다른 번역본을 참고할 것)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을 뜻하는 것이다. 한글 개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5절의 '또 다시' 7절의 '또' 10절의 '또'에 주목해야 한다. 6절의 '다시'가 동사 '들어오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반복한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NIV*는 'and again'으로 번역하고 있다(2:13).

14. 구약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한 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글이다. 5절에 인용된 삼하 7:14은 본래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신 말씀이다. 그 당시에 직접 지칭하는 것은 솔로몬이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듯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대가 가능한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옛날 특정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다. '그 옛날에 이러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 내게 관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다. 같은 말씀이라도 처한 상황, 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

15. 6절의 인용문은 신 32:43의 인용어란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 32:43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7절도 시 104:4의 인용인데 확인해보면 조금 다르다?

당시에 널리 사용하던 70인 역의 인용이기 때문이다. 사해 사본과 70인 역에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라'는 구절이 들어 있지만 *MT*(맛소라 사본)나 한글 개역에는 없다. 더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인용하였다. 아마도 70인 역을 번역할 때 여러 사본들 중에 이 구절이 포함된 사본이 있었을 것이다. 7절 인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 70인 역(*LXX, septuagint*)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6.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천사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5). 그러면 천사와 아들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6)?

**경배받을 자와 경배할 자:** 무수리와 중전만큼의 차이보다 더 크다.

17. 태풍과 산불을 생각해보면 바람과 불꽃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것이다. 천사가 바람과 불꽃이라면(7) 예수는 무엇인가? 7-9에서 두 가지를 지적해보자.

바람과 불꽃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도구이다. 예수는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바람과 불꽃이 엄청난 위력을 지녔을지라도 소멸하기 쉬운 반면에 예수는 영영하시다. 8-9절을 정리하면 예수는 왕권을 지니고(보좌, 나라, 흠, 기름부음) 천사들을 부리시는 영영하신 분이시다. 시 45:6-7(8-9)의 동류관? 여러 왕들 중에서 더 뛰어난 왕이란 뜻이다.

18. 시 102:25-27(10-12)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피조물은 멸망할 것이고, 낡아지고 변하겠지만 아들은 영존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인용하였다.

19. 시 110:1(13)을 인용하여 천사와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가?

천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존재가 아니라 심부름꾼 아니냐?

<종합> 천사보다 예수가 탁월한 것은 이름에서(4), 신분에서(5-하나님의 아들, 6-경배받을 자, 13-왕), 관계에서(7-9 사역자와 도구), 본질에서(10-12 창조자)

## 히브리서 2 장

1. 그러므로... 홀러 떠내려가지(표류하지) 않도록 삼가란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삼가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인데 의역한다면 '조심스럽게 간직하라'가 될 것)

**예수는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므로!** 1장 전체를 가리킨다. 그 분에게서 들은 것을 더욱 조심스럽게 간직하라는 것이다.

2. 모든 들은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란다. 언제 들었지?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3. 1-4에서 복음을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천사들이 전한 것(갈 3:19,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의미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큰 벌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더 큰 이가 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친히 증거한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더욱욱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삼갈 것이다.

4.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 2세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3):** 최소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며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는 아니란 증거다.

5.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전하여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6. '성령의 나눠 주신 것'(4)의 '성령의'는 주격인가? 목적격인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결국 같은 것 같다)

< 1장은 2장 4절까지 한 단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의 탁월함? >

< 2장 5절부터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됨: 그리스도의 성육신 >

7. 앞 장에서 예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1-4절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 분이 직접 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구원을 무시하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왜 또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는가(5-9)? <18번까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천사보다 탁월한 그 분이 현실적으로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9-17)를 설명하려는 의도이다.

8. 5절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8절의 만물로' (만물을' 아니고):**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예수가 만물의 주관자라는 말이다.

9. '어딘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있는 줄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어디'(=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6)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의 경우와 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

**바로 뒤에서 유명한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 모두가 아는 구절을 구태여 장절을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를 피곤하게 만든다. 더구나 지금처럼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니 정확하게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는 번거롭기만 했을 것이다.

10. 인용된 시 8:4-6(6b-8a)은 사람에게 관한 글인가? 메시아에 관한 글인가? 사람에게 관한 것 같은데? 9절에 의하면 메시아에 관한 글로 인용하고 있음: 창조시라고 불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함, 비슷한 예로 창 3:15, 수 1(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2)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함

3)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짐 - 세 개의 그림이 중첩됨

11. 인자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9절)

12.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9).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1) 5-8에서: 만물을 향한 통치권의 확립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도 통치권을 회복하기 때문)

2) 9-16에서: 구속받을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3) 17-18에서: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13.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8)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가리킴

14. 9절의 '우리가'에 걸리는 동사는?

(예수를) 보니: 이 본문에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우리가 아니다.

15. 6-8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 8:6인데, 6-8절에서는 직접 인용이라면 9절에서는 간접 인용이다. 인용하는 의도가 어떻게 다른가?

6-8절: 예수님의 성육신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 회복을 위함이다.

9절: 예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다.

16.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9)** 이런 과정없이 영광만 누리려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그만큼 불의한 세상이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잘 사는 사회여야 하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나? 그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말인가?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다(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 본래 온전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었다).

17. 10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찬양이다. 다음과 같이 ( )에 알맞은 말을 넣어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위한 (자격이 충분하게 하심) 합당하도다! 여기서 '주'는 Lord(큐리오스: 지배자, 주인)가 아닌 Author(아르케: 창조자, 근원. 행 3:15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밀한 번역)이다. 구원의 근원(출발점)이 예수라는 뜻으로 어감이 좀 다르다(12:2에도 동일함).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찬양인 셈이다. 이렇게 쉬운 말로 써주면 좋을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우리에게도 어렵겠지만 이 글을 받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힘이 있다. 가령, 오래 전 조선시대에 어려운 한자말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양반에게 언문식 표현의 쉬운 말로 편지를 썼다면 읽을 생각도 하지 않을지 모른다. 전문용어를 아는 사람끼리는 전문용어를 쓰는 것이 쉽다. 외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울지 몰라도.

18.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는가(11)?

**예수와 우리:** 본래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자신과 같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19. 12절에서 시편 22:22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인가? (시편 22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절한 기도이다(특히 1-2절).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기쁨을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수의 성육신이 바로 그렇다는 말이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와 하나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11절에서 '하나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12-13절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다시 14-17까지 발전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20. 13절이 인용하고 있는 사 8:17-18절의 내용은 '앗수르의 침입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왕과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다른 나라와 안보동맹을 맺어도 바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처럼 '노략이 속할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될 것이다'는 내용이다(설교: '피문은 복장을 불에 사르며' 참조).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할 것이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사야만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는 구속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13a)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15).

21. 예수께서 마귀를 없애고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면 꼭 혈육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령,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꼭 물에 빠져야 하나? 아닌데? 본문의 어느 말(단어, 표현)이 이 질문의 답이 될까?

**14절의 '자녀' 혹은 '한 모양'(=혈육에 함께 속하심), 17절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자녀(형제)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같은 자녀(형제)가 되려는 것이다. 구원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다. 다만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식이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모양(혈육에 함께 속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14)!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물에 빠진 자를 물가에 서서 견져내야 하는 것은 물에 뛰어들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냉정하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라면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본문과 상관없이 답한다면 '죄를 그냥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팔공한 성품 탓이다.' 그냥 대충 구원해버려도 될텐데, 꼭 이렇게 희생을 치러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다.

22.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이런 고생을 겪으셔야 했는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15):** 본래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줄로 알고 잘 사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회복될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격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23. 예수는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왜?

**형제들과 같이 되어(도성인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는 이 역할에 완벽했다. 마치 사고치고 집나간 동생들을 다독여 아버지 앞으로 데려온 큰 형님처럼!

24. 예수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형제지간으로, 자녀의 손을 잡고 이끄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있다. 어떤 모습이든 질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형제, 자녀, 백성을 다른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16):**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임을 뜻한다.

공변된: 공정한, 정당한

### 히브리서 3 장

1. 편지의 수신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옆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부르자, 귀하게 여기자. 비록 어리고 뼈딱할지라도, 더 좋은 표현을 소개하면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이다(롬 14:15).

2.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도 사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점에서 사도이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완성자시다.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히브리서 뿐이다.)

3. 2:1에서 언급한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할 것'과 3:1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비교해보자.

**들은 것(2:1)과 예수(3:1):**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은 들은 것, 즉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이므로 같은 내용의 변주이다. 같은 말을 실증나지 않게 적절하게 변화시켜가며 반복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솜씨다. 그러나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셈이다.

4.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잘 아는 모세를 통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존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는? 이런 장검다리 없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는가?

5. 모세와 예수의 같은 점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점(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 점, 성막을 세운 것과 교회를 건설한 것, 이스라엘 건설과 하나님 나라 건설, 등):** 보통은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은 죽여 버리는데 반하여 모세를 추켜세우고 있다(충성, 사환).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니까? 흠을 낼 수 없어서 그랬을까? 한 사람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그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름다운 방법이다. 앞 사람을 희생시켜서 뒷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은 좋지 못하다. 사환이라는 말은 종이거나 마찬가지로 어감의 차이가 있다. 모세에게 사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6. 모세와 예수의 다른 점은?

예수는 집을 지은 자요 모세는 집이다(3).  
 모세는 사환이지만 예수는 아들이다(2).  
 모세의 인도는 실패했지만 예수의 인도는 성공했다.

7. 같이 충성했는데 한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것은 문제 아닌가?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인집 아들과 머슴이 함께 종일 일했으면 누가 더 칭찬을 들어야 하는가?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청소를 똑같이 했다면?

8. 짐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만물도 마찬가지다. 짐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절로 된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화론자들

9.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6, 14). 이와 대비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광야의 이스라엘(8-11,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자, 범죄하여 광야에 엎드러진 자, 순종치 아니하던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10.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하였단다. 모세도 종말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모세가 말하는 장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장래라는 말만 나오면 종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세의 상태에서 장래는 예수의 때를 말한다.

11. 3:8-11절은 시 95:7-11의 인용이다. 1)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2) 인용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1) **못난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보고도, 증험하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보지도 않고 따르는 것이 가능한가?

2)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지명을 의미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다(70인 역을 따랐기 때문이다). 맛사의 날 = 시험의 때, 무리바에서와 같이 = 격동(다툼, 출 17:7).

3)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는 명령형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란 조건절로 바뀌었다(70인 역을 따랐기 때문이다).

12.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를 본 장에서 찾는다면 무엇일까?

배교의 위험에 대한 권고(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13. 어떤 방법으로 그런 위험에서 이기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 다 찾아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1), 소망의 담대함(confidence)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6), 서로 권면하라(13), 강박케 됨을 면하라(13),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14),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라.

14. 당근과 채찍이란 마부가 말을 다룰 때 쓰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당근은 앞에서 끄는 역할을 하고 채찍은 뒤에 미는 역할을 한다. 신앙을 저버릴 위험이 있었던 성도들에게 당근과 채찍처럼 기억하라고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 예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되 광야에서 엎드려진 출애굽 일세대의 본을 박사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림같이 선명한 메시지이다.

15.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염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부(가데스 바네아가 원인이다. 예수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거부행위이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다.

16. 수신자들이 만약에 예수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조상들이 저질렀던 어떤 일의 재판(再版)'이라고 설명하는가? 물론 우리도 많이 들은 설교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광야 40년 배회 선고)에서의 일이다.

17. 66-13 말씀을 14:1에서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 약간의 변화는 있으니 비교해보자

1) 그의 집(6) →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14)

2) 성령이 이르신 바(7) → 성경에 일렸으며: 시편은 다윗의 글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뜻이다.

3) 9-11절 → 16-19절: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꾼 셈이다. 설명문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더 효과적으로 권면한다.

4)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12-13) →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4:1)

18.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순종(믿음)을 요구하신다. 이울배반적이지만 둘 다 옳은 말이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도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정,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전자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도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 4장이 계속 설명함)

초신자에게 해야 할 말과 장로나 권사에게 할 말이 다르다. 교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목회적인 필요성에서는 이룰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널 믿는다' 이것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항상 좋은 말은 아니다. 때로는 '널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 히브리서 4 장

1.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4:1) 뒤에 나오는 11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에 대한 과거사를 생략하고 말하고 있다. 안식에 대한 설명을 다 확인한 후에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보자.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직 이 약속이 유효할지라도 (두려워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2. 서로가 잘 아는 이야기라고 순서에 상관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는 당사자들은 잘 알아들어도 제 삼자는 헛갈리게 마련이다. 여기 본문의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주제 파악을 위하여, 1) 1-1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미가 같은 것까지)는 무엇인가? 내용 정리를 위해서, 2) 그것을 몇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가?

1) 안식(=쉬셨다)

2) 세 종류: 대과거(4), 과거(3, 5, 8), 미래(1, 3, 6, 9, 10, 11)

① 대과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쉬셨다'(원형)는 것이다.

② 과거의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 즉 안식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모형(연습게임)에서 실패한 자가 있으므로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말이다.

③ 미래의 안식은 믿는 우리가 들어갈 안식(완성형)이다.

3.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다(3:6)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히브리 기자는 같은 내용을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안식에 들어감(1, 3, 6, 9, 10, 11)

4.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른가(2절)?

**닮은 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다른 점:**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치 않았고 우리는 믿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5. 3절 뒷부분의 '그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안식은 폐지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완성된 것이다. 단지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조상들의 실패를 말하면서 본을 받지 말라고 3:12-19에서 강한 톤으로 말했다. 같은 시편 구절(시 95:11)을 여기서 또 인용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절 후 반부는 '안식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고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안식은 창조 때로부터 여전히 있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인용구절 뒤에 '...는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을 추가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6. 히브리 기자는 히 3-4장에서 결국 시 95 편을 몇 번이나 인용하는가?

5번: 3:7-11, 15-19(일부는 간접 인용), 4:3, 5(간접), 7

7. 조상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순종)으로 화합해야 한다(2)**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격적인 존재, 즉 책임과 의무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상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 믿으라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따져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아닐까? '그래도 내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안 받는 놈들이 있으니...

8. 7절에서 인용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날'이다. 이 날은 어느 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날:** 8절의 '다른 날'이 곧 오늘날이다. 여호수아의 날에 안식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훗날, 즉 '오늘날' 다윗이 이 말을 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9.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오랜 후에 '오늘날' 다시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10. 3-11절은 문맥을 따라 읽기가 쉽지 않다. 3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4-5절은 역순으로 다시 설명



한다(5절에서 문장을 마치고). 안식은 창조 때부터 준비된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6-9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무엇일까?

**들어갈 기회가 있다(6절의 시작, 9):**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예를 들면서 여전히 기회가 있으므로 그들의 본을 보지 말고 힘쓰라는 것이다.

11.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니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은 무엇이라 하는가?

**두려워하라(1),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11):**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라는 말은 감사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하게 여기는 극악무도한 죄이다.

12. 12-1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로 여기에 기록된 이유와 상관없이 독립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유를 뜻하는 글자가 문두에 있다(영어의 For).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 설명이다. 앞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식에 들어가기로 게을리 할 때 받을 심판의 불가피성과 철저함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말씀 앞에 감추인 것은 없다. 날카로운 칼(무술, 수술) 앞에 선 우리이니 꼭 순종해라.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에 뒤이어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전자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니 당연히 후자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다(16).

14.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가?

**큰 대제사장(대 앞에 큰),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자, 죄 없으신 자:** 이제부터 예수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3:1에서 말을 꺼냈다가 잠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제 길로 가려는 것이다.

15.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점도 있어야 하고 다른 점도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그러한가?

**같은 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채 시험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점:** 죄는 없으시니라. 자신도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체휼(體恤)하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

## 히브리서 5 장

1. 예수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천사, 모세와 대비해서 설명을 했다. 여기서는 누구와 대비하려고 하는가?

대제사장 아론

2. 대제사장의 2가지 자격은 무엇인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연약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존귀한 자),

3.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사람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 1년에 1차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죄 지은 인간에게 동정할 수 있는 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이다.

**자신도 연약한 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4. 무식하고 미혹한(잘못 인도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대제사장이 상대하는 죄 지은 사람

5. 예수에게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사람이므로 자격이 있다(7-9):** 예수님의 성육신의 당위성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5)

6.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다면?

사람 ↔ 하나님의 아들(멜기세덱의 반차)

죄 있는 제사장 ↔ 죄 없는 제사장

예물을 구해다 드렸음 ↔ 자신을 드림

7. 멜기세덱의 후손이 제사장 노릇을 한 적도 없고 후손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의 계열 제사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무슨 뜻일까(7장에서 설명 됨)?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하여 7장에서 설명이 나온다. 예수는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8. 기도에 대하여:

1)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실까?

‘내 기도 때문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차원이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2) 예수는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가?

겔레마네 동산의 기도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삶 전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예수의 기도는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따르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였다.

9.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옳은 이야기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표현도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도 옳은 이야기인가?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예수에게는 고난보다 순종이 먼저일 것이다.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10.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온전케 되었다.

11.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난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좋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짐.

12.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겠다는 뜻인가? 7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기를 죽이자는 뜻인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으니 주의해서 들으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5:11-6:20까지는 주제에서 잠시 이탈해서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13. 저자는 예수를 누구와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았는가? 그 이유는?

멜기세덱

**수신자들의 이해력 부족으로:** 선생이 되어도 시원찮을텐데 아직도 초보수준이라니...

14. 선생도 자기 아이는 못 가르친단다. 공부를 가르치다보면 화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이쯤 되면 옆으로 새는 셈이다. 본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잘 나가다가 어디로 새버렸는가?

'제발 좀 자라거라' 로. (=교회 다닌 지 몇 년째냐?)

## 히브리서 6 장

1.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5:11-6:8과 6:9-20을 비교해보라. 어떻게 주장하는 바가 다른가? 어느 쪽이 진심일까?

5:11-6:8에서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6:9-20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진술한다. 후자에 강조점이 있다. 전자는 후자를 위한 부정적인 표현일 뿐이다. 진심은 후자에 있다.

2. 가축의 위험이 있는 불량소년을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어떤 말씀과 비슷할까?

1) 단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에 재미를 느끼도록 해 보렴 (권고).

↔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3, 신앙적으로 성숙하라)

2) 한번 잘못 들어서면 영영 풀이킬 수 없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망치는 거야(경고)

↔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6)

3) 또 그런다는 것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니까 절대 그러지마(협박)

↔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6)

4) 너만 잘 해봐라 네 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안 들어 주겠니(회유)

↔ 하나님께 복을 받고(7)

5) 잘 할 줄 믿는다. 여태까지 잘 해 왔잖아(격려)

↔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9)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10)

6)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니? 너희들 잘되길 바라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애원)

↔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11)

7) 너희 삼촌도 그럴 뻔했지만 잘 참고 견디더니 요즈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알지(인용)

↔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12)

8)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 좀 참고 견디어 봐.

↔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15)

3. 성숙하게 되면 초보를 버려야 하는가?

**그것을 기초로 응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진보를 이루라는 뜻.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으나 설교가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언제까지 출발점에서 맴돌기만 할 건가!

4. 여기서서는 무엇을 초보적인 교리라고 말하는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기초학습에 해당하는 셈이다. 기초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5. '완전한 데'란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5:7-9, 5:14을 참고하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신 것이다. 장성한 자란 연단을 받은 자 즉 고난을 이긴 자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것이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성도의 견인과 어떻게 다른가?

**그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본문은 배교에 대한 위험이 눈앞에 닥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목회 설교이다. 신학을 논하는 본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험에 직면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태와 미성숙의 도구가 될 때는 과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심은 6:9-20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재는 그럴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는 표현이 진심이 따로 있음을 보여준다. 독자들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예컨대, '학비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는 말은 집안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실제로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학비 걱정은 하지 마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런 말이 부모의 진심이나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부모의 마음이란 측면에서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교육이란 측면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성숙의 표준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타락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7.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영경귀'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 표현이 성경의 어디에서 이렇게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창 3:17-18:**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채소를 내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점을 배경에 두고 있는 셈이다. 성장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 셈이란 의미이다.

8.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느 본문과 일치하는가?

- 1) '하지마라'만 열심히 반복하면 아이를 버리게 된다. 오히려 하라는 쪽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 가령, TV 보지마라. 자지마라. 놀지마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 저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가지의 '하지마라'보다는 한 가지 '하라'가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One do is better than ten don'ts.*: 3절의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 2) 잘못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고 믿어 주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9-12
- 3) 사람들도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확실한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케 하려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17절.

9.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을 있는 대로 찾는다면?

-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신앙적으로 성숙하라):** 목표 설정
- 나중에는 풀이킬 수 없다:** 경고
- 배교자가 되면 심판이 있다:** 경고
-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9, 너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님을 확신한다):** 격려
-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우라:** 방법 제시

10. 9절의 '이보다 나은 것'은 '구원'과 동격의 의미를 지닌다. '더 나은 것들, 곧 구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저자가 독자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의치 않는 것(10):**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다.

11. 히브리 저자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11-12)

**너희 각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배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좀 거친 언어로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주의를 촉구하였다.

12.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았으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본문에 답이 없으니 평소 실력으로)?  
평생을 참고 기다려서 어설플 아들 하나와 무덤에 떨어진 밭 한 뼛을 얻었으나 그것을 약속의 성취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후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 하였다(요 8).

13. 신앙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는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성장해야 한다(1=3).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13-20).

14. 어떤 점을 설명하고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가?

믿음과 오래 참음(12, 15)

15.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18)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여 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17)?

**약속과 맹세:**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을 하셨다. 개역성경의 이 부분 번역이 좀 애매하다.

<표준새번역>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6. 배의 닻이 있어야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든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 1) 소망이 있어야 한다.
- 2)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17. 제사장의 반열에 랠기세택이 있는가?

**없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다. 시 110:4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특채하신 셈이다(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도함).

**세례:** 구약의 여러 가지 정결예식을 가리킨다.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은 중요시했으나 차츰 세례로 단 순화 됨.

## 히브리서 7 장

[ 1-19: 멜기세덱의 계열로서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탁월성, 20-28: 구약의 제사장과의 비교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탁월성 ]

1. 멜기세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예수의 모형이었기 때문:** 제사장직은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레위인 아닌 제사장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제사장이 있었으니 바로 멜기세덱이었다(창 14:18-20, 시 110:4). 1-19절은 멜기세덱의 계열로서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탁월성을 소개하는 글이다.

2. 어떤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음(=신적 요소)** 왕들을 소개하는 장면과 비교해보라. 이것은 구약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물함을 의미한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멜기세덱의 신상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록자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3. 신분상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위대한가?

제사장인 동시에 왕.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직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혼동되지 않았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왕이라고 함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멜기세덱의 이름은 그가 위대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멜기(=왕)세덱(=의) = 의의 왕, 샬렘 왕 = 샬롬(평강)의 왕.

5. 멜기세덱은 누구와 비교해서 뛰어난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 레위(다른 제사장을 의미함)보다 더 높은 자 ↔ 멜기세덱은 살아있는 자 같음(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8절)

6. 십일조와 관련하여 멜기세덱이 높은 이유는?

1) 아브라함에게서 받음(높은 자이기 때문에 받았다) ↔ 자기 형제에게서 받음(다른 형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임에도, 태생이 같음에도 십일조를 받은 것은 율법의 명 때문이다.

2)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대사회에서 이것은 높은 자의 특권이었다.

3)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7.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소개하려는 예수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다(14).

8. 13절의 '이것'이란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다른 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12, 17, 6:20)

9. 새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1).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가(16-19)?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은 죽을 육체와 관계된 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16). 계명이 연약하고 무의함(18). 그 외에도 능력이 부족하여 제사장의 수효가 많음(23), 맹세없이 제사장이 됨,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음.

10.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변역되었는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제사장 직분에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 근거가 되는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다. 율법이 아닌 맹세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를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웠다.

11.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어떤 관계인가(16)?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본체와 그림자의 관계이다:** 전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존립 근거이고 후자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근거이다.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불완전하지만 예표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12. 율법이 연약하고, 무의하며,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하는데(18-19)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본래부터 그렇게 못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온 뒤에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를 애물단지로 여기지만 승용차를 가질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에는 오토바이도 대단히 귀하고 자랑스러운 물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고 바울도 몽학선생이 되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13. 새로운 제사장 예수는 맹세로 되신 분이시다. 맹세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6:17)?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16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21):** 가령,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율법의 규정에 따라

레위인이기만 하면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반면에 예수는 그런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증(=실력인 셈이다)으로 특채된 셈이란 뜻이다.

14. 율법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율법과 대조적인 표현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된다.

**더 좋은 언약(소망)의 보증(22):** 새로운 언약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것도 좋은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율법은 죄인이 하나님께 겨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하셨다. 젊은 남녀가 인간 대 인간으로 텅텅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 변하는 사건처럼(18-19)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관계(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요구하심)를 원하셨기에 완전한 제사장이 요구된 것일 뿐이다.

15. 새로운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22), 혼자서(23-24), 영원한 대제사장이요(24),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25, 27):** 한 마디로 능력있는 유일한 제사장이다.

16.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새 제사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레위계통의 제사장	새 제사장
입명근거	맹세없이(율법으로)	맹세로(하나님의 보증)
인원	숫자가 많음(일시적)	혼자임(최종적)
완전성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음 (제사의 효력이 일시적임)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음 (단번에 모든 구원을 이룸)
능력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 약점을 지닌 인간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음 온전케 되신 아들
본성	약점을 가진 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제사횟수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드림	한 번의 제사로 끝냄
능력	제한적	영원함

17. 같은 로마인이라도 바울을 조사하던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인이 되었다고 했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고 했다. 돈을 주고 산 로마인의 자격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의 자격을 갖춘 자처럼, 제사장이라도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레위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주어진 직분에 불과(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증으로 된 것: 제사장으로서의 태생이 다르다**

18. 28절은 멜기세덱을 인용하여 예수의 탁월성을 언급한 내용의 최종 완결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는 율법이 아닌 맹세의 말씀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제사장이 되었다.

### 히브리서 8 장

- 예수께서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것:** 비행기가 아무리 편리하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는 위대한 제사장이면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시다.
-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좇은 더 좋은 제사장이시다(7장). 8장에서는 무슨 근거로 예수를 더 좋은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모형이나 그림자의 제사장이 아니라 실체(2, 참 장막)의 제사장이므로:**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예수는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므로.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2) 드리는 예물의 차이.
- 예수는 어떤 분인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1):**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기도하시는 것(히 7:24-25, 롬 8:34)과 통치(계 19:16) 심판의 때를 기다리심(히 1:13, 고전 15:23-28).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분(2):** '부리는'이란 말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섬기는 자, 혹은 봉사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다. 전능의 왕이신 그 분께서 여전히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  
 땅에 계신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제사장(4)
-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왜 말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 품을 들여놓고 나중에(9:14) 다시 말함, 혹은 이미 말하였음(7:27). 8장이 9장의 도입이란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반어법적 표현이다.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 새 제물을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6)는 의미이다.
-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모세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었기 때문이다.
- 두 개의 장막을 다음 도표에 맞추어 비교해보자.

	모세의 장막	예수의 장막
위치	땅	하늘
지은이	모세	하나님
가치	모형	원본
용도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사를 드림	하나님과 어린양의 상징(계 21:22)

-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들어 준 모형과 그림자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장막을 갖게 되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장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더 아름다운 직분:** 하늘나라 장막의 제사장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약속으로 바로 뒤의 인용 구절이다(8-12).  
**더 좋은 언약:** 플레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긴 언약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이런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운 이 관계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이어서 전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장막:** 하늘에 있는 원본(=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예레미야:** 8절 이하의 인용 구절은 예레미야 31: 31-34절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때에 이루셨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5)
-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었다(렘 1:2). 유다마저 곧 망해버릴 형편이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울 상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목하시는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모든 민족이 통합될 것을 말한다:**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유다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통합될 미래의 나라이다.



11.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9)**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아이들과 맺은 약속과 같고 새 언약은 장성한 아들에게 하는 약속과 같은 셈이다.

12.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기려고 하시는가?

**생각과 마음에:** 이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섬김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관계로의 변화이며, 동기 면에서 보면 형벌의 두려움에서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로 변하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에 새겨두면 결코 떠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 된다. 옛 언약처럼 언약에서 떠나는 일(96)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13. 또 다른 차이점은?

**가르쳐 겨우 아는 것(의미도 모른 채, 극히 적은 소수만이 하나님을 알고 관계함)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안할 것임을 말한다.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14. 새 계명을 주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안 그랬는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세의 율법을 줄 때에도 분명히 그랬지만 율법에서는 이 부분의 의미가 축소 내지 무시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15. 옛 언약은 밝아지고 쇠하는 것. 그러면 진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왜 형편없는 것을 주셨는가?

좋은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96).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히브리서 9 장

1.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말한다. 이것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섬기는 예법(제사제도)과 세상에 속한(지상의) 성소에 대한 규제:** 모세 이전에 다른 언약도 있는데?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면 모세와 세운 언약이 제대로 된 첫 언약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언약은?

세상에 속한 성소?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 11절의 성소와 대비되는 것

2. 1절의 성소와 2절의 성소는 어떻게 다를까?

1절의 성소는 성막 전체를 가리키고 2절의 성소는 성막의 두 방 중에서 앞 쪽의 큰 방(=첫 번째 장막)을 가리킨다.

3. 성소의 모습을 설명대로 정리해보자(2-7). 물론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소가 아니다(5). 성소는 무대배경인 셈이다.

1) 몇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가?

2개

2) 각 방의 이름은 무엇이며, 무엇이 들어있는가?

**성소:** 등대, 상, 진설병

**지성소:** 금향로, 언약궤, 속죄소(뚜껑 혹은 시온좌: 은혜를 베푸), 그룹들

3) 출 30:1-10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성소에 있는 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향단의 원래 위치는 성소이지만 속죄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이동식이었다. 즉 사용처는 지성소였음)

4) 두 방을 구분하는 것은?

휘장(예수께서 찢으신 것)

5) 언약궤의 모습과 내용물은?

사편을 금으로 싼 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것을 덮은 그룹, 만나를 담은 향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6) 각방의 용도는?

**성소:** 제사장들이 항상 섬기는 예를 행하는 곳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섬김(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 -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4.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사장은 성소에 항상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일년에 한 차례 들어감:** 반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역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셈이다.

5. 제사에 왜 꼭 피가 필요한가? 물건을 정하게 하려면 차라리 소금이 낫지 않을까? 왜 소금은 쓰지 않았을까?(7, 11-22)

원칙적으로 피 없이는 안 된다(7, 22). 피흘림이 없는 제사(곡식을 드리는 경우나 전제 등)도 있었지만 그런 제사도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여전히 피흘림이 수반되는 제사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6. 대제사장이 매년 일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7)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 것인가 아닌가?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다는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셈이다. 아쉬운 대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라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지만...

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보니 거기에 비하면 전혀 길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7. 장막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무슨 관계가 있거나 공통점이 있다는 말인데?

이것들은 동일하게 비유이며 일시적인 육체의 예법이고 하지만 속죄의 방법이기도 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 근거한 속죄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8)는 것은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속죄는 가능하지만 인격 대 인격으로까지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8. 새로운 성소가 이전의 것과 다른 점은?

	이전의 성소	새 성소
지은이	손으로 지은 것(사람)	손으로 짓지 않음(하나님)
소속	창조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크기,안전성	작고 불안정한 것 (개혁대상)	크고 온전한 것
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제사의 효력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	한번에 OK
속죄의 효력	1년	영원함
속죄의 방법	제사, 씻고, 먹고, 마시고	

9. 두 장막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인가?

피(제물이) 필요하다.

10. 11절의 '장래'는 번역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더 문맥에 맞을지 생각해보자.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킨다. 내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11. 11절과 12절은 많은 내용을 한 문장에 담았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나머지는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12. 염소와 황소의 피는 제사 드릴 때 잡은 짐승의 피를 가리킨다. 그러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암송아지의 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암송아지는 원칙적으로 속죄제에는 사용하지 않고 화목제에만 사용되었다. 특별한 경우에 암송아지를 속죄제로 쓰는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사르고 불사른 재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민 19). 암송아지의 피는 속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화목제로 쓸 때는 내장만 사르고 고기는 나누어 먹었다(레 4).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점은 암컷도 쓰인 것인데 모두가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13. 제사에 암송아지도 사용했을까? (참고: 레4, 민 19)

원칙적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만 속죄용으로 사용했고 고기는 전부 불살랐다. 암송아지를 속죄제로 쓰는 경우에는 불사른 재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민 19). 암송아지의 피는 속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화목제로 쓸 때는 내장만 사르고 고기는 나누어 먹었다(레 4).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은 암컷도 쓰인 것인데 모두가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14. 번제로 드려진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양과 염소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을까? 설명해보자.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남의 집 염소 떼와 자기 집 외아들과의 차이, 금과 보관중서의 차이:** 전자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후자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요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탁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15.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혼치 않다. 본문의 어디에 있는가?

**14절:** 인류를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런 장면이 있음)

16.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란 '첫 언약 아래서 속죄받지 못하던 죄(일시적인 속죄는 가능했지만 근본적으로 속죄받지는 못했다는 의미)'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첫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인데?

새 언약에 비추어보면 그렇다. 첫 언약이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다보니 새 언약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예전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남에게 절대로 빌려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나니 오토바이가 별 시세가 없어진 것과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 중보가 뭐야? 보증인?

17. 제사에 꼭 피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유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언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속죄에도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유월절, 제사, 각종 정결례). 우리나라 제사처럼 조상이 와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18. 15-22에 들어 있는 '언약'과 '유언'은 같은 단어(*diatheke*)이다. 같은 단어를 왜 16-17간 '유언'이라고 다르

개 번역했을까? 언약이 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유언대신 언약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언약은 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창 2: 15). 일단 언약이 깨어졌으니 당사자는 죽어야 한다. 일단은 죽어야 다시 언약을 맺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죽었다는 뜻이다. 굳이 동일한 단어를 두고 유언이라고 번역할 이유(위의 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가 없을 것 같다.

19. 첫 언약에서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18-22)?

**정결케함:** 물건에 피를 뿌린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뿌리면(19절의 온 백성) 정결이 곧 죄사함을 뜻한다. 첫 언약에서도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 기자는 계속해서 '죽음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20. 피를 뿌려 정하게 해야 하는 장막과 그릇들(21)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23). 그렇다면 이 장막과 그릇에 뿌리는 짐승의 피도 모형이다. 무엇의 모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늘에 있는 그것들(23)'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 있는 것도 정결케 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형에 대비되는 원형이란 뜻이다. 장막과 그릇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백성들을 속죄케 하기 위함이라면(모형의 의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뿌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거룩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원형의 의미).

21. 하늘로 가신 예수는 더 좋은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셨다.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더 나은지 두 가지를 찾아보자(24, 25절에서 각 1개씩).

**24절:** 하나님 앞에 친히 나타나심 ↔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접으로 만났음

**25절:** 자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 ↔ 매년 대제사장이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렸음

22.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때가 왜 세상 끝인가?

고난을 받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종말적인 사건이다. 그 이후의 2천년의 역사는 우리 눈에 길게 보일 뿐, 하나님의 눈에는 외아들의 희생에 대한 뒤처리(마무리)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23.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27)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예수의 피에 자신을 씻으라:** 위대한 제사장 예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닌가? 예수를 믿으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일 아닌가!

24.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면해야 하지 않는가?

**영원한 죽음이 문제이지 육신의 죽음은 죽음도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새로운 몸도 포함됨)을 위해서 죽으셨다. 진짜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다시 나타나시리라.

25.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매년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가 용서됨을 확인하고 반성했을 것이다. 우리는 단 한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 분의 죽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니(영화 *Passion Of Christ* 때문에 체험?)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의 사랑을 되새겨야 한다.

26.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진정으로 완벽한가? 내가 추가로 다른 제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무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의 문제이다(성화). 구원의 문제와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27. 대제사장과 예수는?

	대제사장	예수
근무처	모형	하늘
도구	짐승의 피	더 좋은 제물(자신의 피)
권위	그림자에 접근	실체에 접근
사역의 효과	해마다 드림	단번에 드림

28. 다음 세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목을 붙이고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자.

- 1) 8:7-13: 새언약에 관한 것(A)
- 2) 9:1-10: 구언약의 한계에 관한 것(B)
- 3) 9:11-28: 새언약의 탁월성에 관한 것(A)

## 히브리서 10 장

1. 10장은 7-9장에 이르는 장황한 논증(율법에 비해서 탁월한 예수)을 정리하는 셈이다. 율법의 특징을 찾아서 예수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1-9절과 10-18이 대조를 이룬다).

- 1)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참 형상)
- 2) 해마다 늘 드려야 함(↔한번으로 완성 14)
- 3) 온전한 사죄의 능력이 없음(2, 4)
- 4) 죄를 생각나게 함
- 5)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함(8)
- 6) 폐지될 것(9)

정리하면 율법은 그림자(불완전함)요 예수는 실체이다.

2. 죄를 없애지 못하는(언제든지 온전케 = 결코 온전케, 1, 11) 황소와 염소의 피를 왜 매년 드리라고 했는가?

예수의 피와 비교하니 그렇다는 말이다. 그 당시에는 일시적이긴 하나 유일한 방법이었다(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음) 지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못 빌려준다'고 했다. 예수와 비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렇다는 말이다.

3.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여 매년 드려야 했지만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임시로나마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른 유익이 있었다면? 그 점에서 예수라는 제물과 어떻게 다른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3,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 예수의 죽음은 단 한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버렸다.

4. 구약의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거나 스스로 범죄했다고 여기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렸다. 힘은 들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 용서를 받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의식을 중시하는 천주교인들처럼).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는 절차가 너무 쉬워서 용서받은 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죄를 경시하는 경향도 있다. 어느 방식이 더 나을까?

형식을 중시하는 교제나(가령, 중매방식의 교제처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인격적 교제나(연애방식)의 차이(즉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는 자세,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와 같다. 처음에는 형식을 중시하더라도(저차원, 미성숙) 나중에는 인격적인 만남(성숙된 교제)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1) → 해마다 같은 제사를 늘 드려도

5.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려면(5) 무엇이 필요한가?

**몸(우리가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의 실체이며(5), 희생 제사에 드려질 진짜 제물이다.

6. 구약의 오대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이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전부:** 5절에 사용된 '제사'(제바흐)는 동물 희생 제사를 뜻하고, '예물'은 주로 곡물 제사를 가리킨다. 6절의 번제와 속죄제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제사는 동일하게 그림자로서 온전하지 못했다. '전체로 번제함'이란 제물 전체를 태워서(번제) 드리는 자원제를 말한다. 화목제와 속건(죄)제는 번제로(태워서) 드리지만 전체를 사르지는 않았다. 일부는 제사장(속죄제)의 양식으로 쓰고, 일부는 제사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화목제).

7. 하나님께서 제물을 싫어하신 예는 구약에도 많이 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인데 드리라고 해놓고서는 왜 기뻐하지 않는가(5-8)?

임시로 속죄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그나마 마음이 떠나버린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제물 자체보다 마음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8.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약 성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면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셨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던다는 표현과(마 1:22, 2:15, 2:23, 4:14, 8:17, 12:21, 13:35, 21:4, 26:56, 막 13:4, 14:49, 눅 21:7, 요 12:38, 행 4:28, 골 1:25) 성경(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던(요 13:18, 15:25, 17:12, 18:9, 18:32, 19:24, 19:28, 19:36, 행 13:27, 13:29)는 표현이 무수한 것이 그 증거이다.

9. 5-7절의 인용 부분은 시 40:6-8의 간접인용(변형)이다.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삽입되었는지 비교해보자.

시 40:6-8	히 10:5-7
(6)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5)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 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삽입:**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5 = 나에게 입힐 옷을 마련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삽입이 아니라 '귀'가 '몸'으로 해석된 것이다. 70인역에서 그렇게 해석하였다. 어떤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70인역을 번역하던 학자나 히브리 저자에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나에게 열린 귀를 주셨도다'는 말은 '당신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듣는 것을 다 순종하나다'라는 뜻이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만드사 내 몸으로 당신의 뜻을 행케 하셨나이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빠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시 40:6)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한글로 보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삽입이나 변형이다.

**변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7) 시편 저자의 주님의 법에 대한 성실성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적용한 것이다.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일부를 삽입하거나 변형한 이유는 율법의 준수가 최대 과제인 구약적 상황에서의 시편을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보다는 실체인 예수를 중요하게 여긴 신약적 상황으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10.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9):** 첫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구약의 제사(5-6, 8)를 가리킨다.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제사이다(10).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11.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번으로 영원히 완전함(14, 12, 10, 18)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 구약의 많은 제사도 실제로는 제물보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했다.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제물과 하나 되어 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뜻에서 제물이 된 짐승에게 안수를 하였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다(시 50:8, 사 1:11, 렘 6:20, 암 5:21-22).

12. 제사를 드린 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11-14)?

제사장들은 앓지 못하지만(11, 그 제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앓아 계신다(13). 예수님의 일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제사장은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예수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도 답이 될 수 있다.

13. 5-10절의 예수는 '참 제사의 참 제물'이었다. 그러면 11-14절의 예수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예수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이다.

14.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렘 31:33, 34) 왜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 하는가(15, 3:7)?

예레미야의 말씀도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말씀이 과거의 독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하시는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5. 예레미야의 말씀(렘 31:33, 34)을 인용한 의도는 무엇인가?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이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율법에 따른 제사는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18):**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3). 마치 상처를 치료한다면 자꾸 고프려서 아프게 하는 것이나 위로한다면 남의 아픈 기억을 자꾸 고프리는 것처럼! 반면에 예수의 제사는 완벽하게 치료해버려서 고프려도 전혀 아프지 않다.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제물을 대신 납부하였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16.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유대인들이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아마도 구약의 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의식이 빈약해 보인 점과 박해가 심해진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된 논증(7:1-10:18)을 마무리 하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권면하는지 다음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돈해보자.

- 1) 19-25: 예수를 생각하라.
- 2) 26-31: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 3) 32-34: 지난날을 돌아보라.
- 4) 35-39: 담대하고 인내하라.

17. 간이 크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대제사장도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허리에 끈을 두르고 (죽게 되면 밖에서 끌어내려고) 일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이런 담력을 얻었던 말인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19):** 짐승의 피도 속하는 일과 정결케 하는데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 단순하게 피를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할 때 황제의 아들의 친구가 되어 황제 앞에서 뛰놀게 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조금 있을까? 아예 황제의 아들로 입양된 셈이다!

귀신 영화에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들고 나서는 십자가가 짐승의 피라면 예수의 피는 그런 도구가 없어도 귀신이 근접할 수 없도록 사람을 바꾸어 버린 셈이다.

18. '휘장이 곧 저의 육체니라?'(20)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마 27:51, 막 15:38, 눅 23:45)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찢어진 휘장이 곧 예수의 죽음이란 뜻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휘장이 제거되었다는 말이다.

19. 휘장이 드리워진 지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어려운 길(=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이었다. 이제 새롭게 열려진 이 길(=찢어진 휘장)은 얼마나 좋은 길인가! 이 휘장이 아담의 범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아담의 범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한 쪽을 터놓았다(비록 일년에 한 차례지만). 언젠가 찢기 위하여 설치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나마 유일한 통로를 주셨고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이 길마저 환하게 터버리셨다.

20.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여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위대한 제사장에게서 마음에 뿌림을 받고(예수의 희생)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세례).

21. 예수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별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 길을 열어두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22-24)?

믿음(하나님께), 소망(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랑(형제에 대해서: 선행, 격려, 권함)으로!

22.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만약 다시 범죄하거나 배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3. 모세의 법이 교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헌법이다. 교칙을 어기고도 죽임을 당했다면 헌법을 어기면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비교하면서 두 세 증인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28)?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별도의 증인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예수님과 성령이 증인이시고 예수를 배반하면 하나님과 성령이 증인이시니까. 죄의 경중은 차치(且置)하고 증인도 필요없는 일이다.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8:17-18, 5:36-37).

24.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짐짓 죄: 고의적인 죄, 배교)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네 가지 측면에서 답을 찾으라.

- 1) 26-27: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28(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없다):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 3) 28-29(법의 경중):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죄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4) 30-31(다른 원수도 아닌 하나님의 원수라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갚으리라!'(신 32:35)고 하시면 누가 갚히 막겠으며 얼마나 엄중한 벌이 선고되었는가!

25. 어려운 때가 되면 장래에 대한 소망과 지나간 시절의 추억이 꼭 필요해진다. 이런 것이 많아야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히브리서 독자에게는 어떤 추억과 소망이 있는가?

**추억:**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32), 비방(거짓 고소)과 환난(폭력)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동류로 비난받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였지만 기쁘게 이겨내었다.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갇힌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쉬워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망:** 상,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구원, 더 낮고 영구한 기업

26.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곧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가?

**담대하고(35) 인내하라(36):**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을 능가하는 담대함(=확신함)과 인내를 요청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3-4)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권유한다. '담대함'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확신함'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의미한다.

27.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을 인용하는(합 2:3-4) 이유가 무엇일까?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 ?

**지체 때문이다(37):**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답변이 늦었다. 겨우 주어진 하나님의 답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던 것은 예수의 재림이었다. 이에 대한 좌절감이 팽배할 때 히브리 저자는 하박국의 예를 들면서 인내하라고 요구한다.

침륜(沉淪): 멸망, 파괴, 죽음



히브리서 11:1-3

1. 믿음이란 말은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역지를 부리는 것일까? 아니면 확실한 것일까? 채증을 알려고 차를 쓰거나, 맛을 알려고 칼을 쓰거나, 그림을 평가하려고 혀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알려는 대상과 도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면 아는 것, 알아야 아는 것, 믿어야 아는 것이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한지 생각해보자.

**보면 아는 것:** 감각과 관련된 것이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것, 맛을 보고 아는 것, 만져보고 아는 것, 냄새를 맡아보고 아는 것, 먹어보고 아는 것, 들어보고 아는 것, 꺾어보고 아는 것... 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제시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속한다.

**알아야 아는 것:** 보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머리로 보는 것이 그렇다. 감각 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머리가 해석해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음악, 언어(외국어, 방언), 미술, 바둑, 명작(명소, 명품)...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반복해서 보고 들어도 모른다. 이 평가에는 다수결이 소용없다. 아는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애쓰지 않아도 보인다. 이 경우에 증거를 대라면 우스울 뿐이다.

**믿어야 아는 것:** 영적인 것은 볼 수도, 배울 수도 없다. 그저 믿을 수밖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복이다(참고 막 9:21-24: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지닌 아버지의 모습). 믿음을 상실하면 생기는 병이 의처증(고칠 수 없다), 정신이상, 인간성 파괴이다. 이 경우에 '보여 달라'고 하거나 '증거를 대라면 그야말로 스스로 무식함을 폭로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2. 아무 데나 대놓고 '믿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 2가지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상,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구원, 더 낫고 영구한 기업)

보지 못하는 것(하나님의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 훌륭한 그림을 보여준다고 되는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할 뿐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요구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으라'는 대답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진리이다.

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 결국은 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 소원이나 야심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잘못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11장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진 믿음이 그런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바라보며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믿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전능하심, 전지하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등등. 이 모든 믿음의 전제조건이랄까, 제일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참조:** 창 1:1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믿어질 수 없다. 창조 사건이 구속역사의 근본이요 배경이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5. 본문에 나타난 우주론에 대한 두 개의 견해를 말해보라.

1) 보이는 것(=모든 세계)은 나타난 것(창조의 재료라고 할 만한 것)으로 말미암았다. 창조의 원재료가 있었다는 뜻이다.

2) 모든 세계(=보이는 것)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는 뜻이다.

'보이는 것(현재시제로 가시적인 우주)은 나타난(과거시제, 창조 이전의 어떤 물질을 의미함)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다. 현재의 대폭발이론도 여전히 이 주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음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다. 과학적이란 증거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삼으니 결국 길이 다르다.

4~22

6.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누가 빠졌는가?

**아담과 가인:** 진정한 믿음의 계열은 아벨이라는 뜻이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란 뜻으로 아담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7.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창 4:4-12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다르게 취급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인의 태도에서 유추해서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고 본다:** 가인의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

다(=믿음이 없는 행위) 제물이 다른 것은 직업이 달랐기 때문이며 피없는 제사였기 때문도 아니다. 예멘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다. 쫓겨난 이후부터는 제사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모세 시대 이전에 이들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창 31:54, 46:1, 22:2).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차이일 것이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유무다.

단순히 제물 자체 때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보면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함을 알 수 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니(창 5:5) 선생님 앞에서도 그러지 못할텐데 하나님 앞에서? 6, 7절의 책망에 대한 대답이 8절일까? 9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반항이다. 11, 12절의 선고에도 형벌의 중함에만 관심이 있지 결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은 없다.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고 보아야 한다.

8. 죽은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의로운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9. 예녹의 믿음(창 5:21-24)과 결과는? 예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행위: 교제하는 자)라고 불렸으며, 산 채로 데려가심. 외경 지혜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악이 그의 충명을 변질시키거나 관계가 그의 영혼을 속이지 못하도록... 급히 데려 가셨다'고 말한다(지혜서 4:10).

하나님과 동행(70인 역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번역함)하며 자녀를 낳았음.

예녹의 이런 삶의 모습은 라멕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제사, 예배, 전도?

**믿어야 한다:** 제사, 예배, 전도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타난 결과여야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 6:29). 하나님의 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하나님을 아는 기쁨)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11. 노아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순종함:** 달리 말하면 증거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120년 간: 확실하지 않음)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 당시에는 비나 홍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나 홍수가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

12. 노아의 순종이 어떤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구원과 정죄(심판):**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든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이루었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뭐냐?'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노아의 행위와 비교되니까! 교실에서, 모두가 '배운 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한 두 녀석이 배웠다고 하면서 답을 대는 경우처럼 말이다.

13.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길을 떠났는데(창 11:31 ↔ 12:1, 7)?

가려는 곳은 가나안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이 어디,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면 갈 바를 몰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래서 가족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일부는 남지 않았을까?

14. 아브람이 실제로 거하였던 곳과 그가 바랐던 곳은 어떻게 다른가?

**장막 ↔ 터가 있는 성(번성하는 후손의 삶의 터전, 일차적으로는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이고, 궁극적으로는 후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의 평생에 겨우 무덤에 딸린 땅 한 조각과 희미한 아들 하나만 남겼을 뿐이다.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다.

15. 문맥상으로 보면 13-16절은 다소 이상하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도중에 옆으로 샌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주제를 잘 파악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8-22절과 23-38절이 각각 어떤 주제를 논하는지(주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8-22절:** 본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주로 아브라함: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사람),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전혀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3-38절:** 새로운 본향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주로 모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 13절의 이 사람들은 8-22절에 들어있는 사람들, 즉 족장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산 이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13):**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소망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16절의 '하늘에 있는 것'의 원문은 단순 소유격(하늘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직접 지칭하기보다는 하늘의 속성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 백성이 거할 곳, 곧 예루살렘을 가리킨다(10, 16). 일단은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고, 이 땅에서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곳을 가리킨다. 이차적으로는 에덴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17.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은 증거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지적해 보자.

**다메섹 엘리에셀(창 15:2) 이스마엘, 이삭(이름 뜻):**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작은 행위(마지못해서 한 일이나, 멋모르고 한 일까지)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낸 건수가 바로 믿음이다.

18.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어떤 말씀과 상충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답을 찾았는가?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18).

**부활 신앙:**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은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추가>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그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확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매우 많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그 앞장(창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있었던 일을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듣는 게 유익하더라’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19.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했을까? 혹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삭을 바치려고 사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즐겁지 않았을까? 이 어리숙한 자식 하나 주는데 몇 십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이다(요 8:56).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았으며 그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을까?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독생자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 알게 됨,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셨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심(창 18:17-19)

20.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어떤 아들이 눈 어두운 아버지와 다른 형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된 경우와 비교해보자.

정상적이라면 취소하고 축복대신 저주를 쏟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닫기 순복하였다(창 27:33, 37).

21. 이삭에게서 인간적인 실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들을 분간하지도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음, 별미에 눈이 멀었음, 마누라의 마음도 얻지 못함.

22.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창 27)에서 어떤 부분이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가?

야곱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인간적인 분노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음, 그 대신 에서에게는 저주같은 복을 내림(아들을 잃어버린 셈 침), 나중에 외삼촌에게 피할 것을 허락함. 이삭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것.

23.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는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과 다른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일국의 총리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뜻대로 복을 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소신대로 복을 빌었다.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24.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것도 믿음에 따른 행위인가? (창 47:31에는 침상머리라고 되어있으나 70인 역에는 지팡이로 번역되었음. 모음이 없는 글자이어서 양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지팡이는 보행자의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나그네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뜻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셈이다.

25.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월을 20년 가까이 지낸 후 온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에 오른 요셉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래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함):** 억울한 종살이를 15년 간 치르고서 어마어마한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세속에 물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버릴 수 없는 아까운 것이다. 인간적으로 잘되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특히,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라는 표현이 참으로 귀하다.

요셉에게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칭찬할만한 다른 믿음의 행위가 또 있는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고향에서도, 팔려가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26.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의 믿음만 말하는가? 혹시 권력을 가진, 잘난 아들만 아들 대우하는 것 아닌가?

잘 나고 못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1:23-40

27.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믿음의 행위인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목숨을 건 행위(하나님에 대한 신뢰 + 자식에 대한 애정) 자기 자녀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모세의 위대한 믿음도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28. 모세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믿음으로'란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24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더 원함(다음 두 항목은 종속절)

죄악(무슨)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

27절: 임금의 노함(모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을 무서워 아니함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무엇을 참았다는 말?)

28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음

29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29. 모세가 현실적인 어마어마한 복을 가볍게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상 주심을 바라봄: 무슨 상을 바라보았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바랐던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0절의 '하나님의 경영하시라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6절의 '하늘에 속한 본향'이 그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곧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임을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내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30. 모세가 언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가(27)?

나이 40의 일이 아니라 80의 일을 말한다.

31.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임금의 노함: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왕의 분노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눈앞의 바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다.

32. 다음 질문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생각해보자.

1) 일국의 왕자가 그만한 일로 도망을 가야 했을까?

(출 2:11-15)

2) 고난받는 동족을 버려두고 4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3) 호렘산에는 왜 갔는가?

(출 3:3)

4)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출 3:10, 3:11, 3:13, 4:1, 4:10, 4:13)

모세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내가 누구관대 (3:11)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당신은 누구시기에) 3:13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하다(4:1)	지팡이를 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 강물이 피가 됨
말에 능치 못하다.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4:10)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만든 자가 내가 아니냐? 나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4:13)	노를 발하사 전면에 나서는 일은 아론이 한다.

5) 부르심을 받고 집을 나설 때 장인에게는 무엇이라고 신고했는가?

(출 4:18) 형제들을 보려하니 보내달라. 내 동족을 구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기에겐 속스러웠을지 모르겠다.

6)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출 3:18-20 ↔ 5:3)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애굽에 내린 다음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실까 두렵다고 말함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심)

7)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체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 약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의 믿음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간다. 스스로 자가발전이 가능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에 의해서 자라감

33.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출 12장)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전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다. '그런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나?' 이런 소리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34. 유월절 밤에 애굽인 한 사람이 딸이인데 형편이 어려워 도둑질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의 어느 집에 숨어 있다가 이 이상한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뭘 좀 훔쳐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자야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사업은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피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선하고 악함과 관계없다. 비록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피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의무만 있지 나 자신이 못난 놈이라고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허물어 내릴 자격은 없다.

35.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바다가 기적같이 갈라졌다. 이리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인가? 그러면 주저없이 뛰어든 애굽의 군인들은 더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비록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억지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은 믿음이고, 의미도 모른 채 '남이 그렇게 하더라' 해서 하는 것은 미신(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라간 행위(억지로 진 십자가처럼)조차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36. 유월절과 홍해 사건에서 가장 의미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은 구원을 얻고 한 민족은 죽임을 당한 점:** 그렇게 하여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37. 가나안 점령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여리고 성 점령 이야기 하나로 마감해버렸다(30-31). 주인공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고 왜 라합을 주인공처럼 기록하였을까? (라합이 11장의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두루 다닌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의 지도력 하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라합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다윗왕의 계보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을 기억하면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라합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강조할만하다.

38.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일까? 수 6장에서 여호수아가 명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 1) 긴 대열
- 2) 성 위에서 공격해오면
- 3) 무슨 캠페인 하나, 나팔은 왜 불어?
- 4) 병어리가? 소리도 못 내게?
- 5) 돈다고 무너지면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 6) 오늘 일곱 바퀴 돈다고? 한 바퀴씩 돌아서 안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일곱 바퀴 돌면 무너지는 이거지?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 7) 길게 나팔 소리가 나거든 외치라고 이게 외친다고 무너져? ↔ 나아만의 이야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
- 8) 약탈을 금하면 무슨 재미로 싸우나?
- 9) 이왕 13바퀴를 돌아야하면 첫날에 1바퀴, 이틀째부터 2바퀴씩 돌아야지 마지막 날 7바퀴는 무리 아냐?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때가 없었다. 누구 말마따나 균기가 바짝 들어서?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았다!

39. 홍해를 건너 일과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발견한 핑계거리(이스라엘의 울부짖음, 소리 지름: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보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릴 때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고향소리에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의 기도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니 까 이렇게 되더라' 해서 공식처럼 되어가는 것은 나쁘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선물을 사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선물을 자꾸 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다

40. 가나안 정복 시대를 간단하게 압축하더니 32절도 그렇다. 32절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선지자들의 시대, 즉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말하자면 구약의 끝). 결국 11장의 문맥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창조의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41. 사사는 전체 15명인데(웃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라고는 하지만 제외) 32절의 네 명(사무엘은 여기서 선지자로 취급됨)이 왜 대표인가?

이 시대의 히브리 역사를 요약한 삼상 12:8-11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 같다:

42. 사 6장에서 기드온(여룹바알)의 행위에 대하여 자랑할만한 것과 비난할만한 것들을 찾아보자.

- 1) **밀을 포도주 틀에서:** 적에게 들킬 것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는 행위
- 2) **하나님께 반항 비슷한 말을 함:** 대체로 말이 많음
- 3) **제일 작은 자:**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핑계거리나 원망에 가깝다.
- 4) **표징을 구함:**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군소리 없이 '아멘' 해야지?
- 5)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보고 죽음을 생각함
- 6) 밤에 우상을 제거
- 7) 이적을 구함 2개 (하나님을 시험함) *double*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로서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다. 기드온의 위대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기드온의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다.

43. 바락(베단)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명을 받고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운 사람이다. 그가 명예에 결정적인 흠을 남긴 것은 무엇인가?

가서 싸우라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사가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한다고 요청한 것 때문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공을 세움

44. 삼손의 인생은 성공한 삶인가? 실패한 삶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로 인생을 망쳐버림, 사람의 눈에는 비록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라면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느냐에 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로 적합한 요인은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극적인 반전과 초인적인 영웅담 외에 연애담까지 있으므로.

45. 서자 출신으로 쫓겨났다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입다가 애국지사라기보다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릴만한 사건은 무엇인가?

어려운 서원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다.

46.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기드온, 다윗,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아버지의 위대함과 정 반대의 아들을 두었음:** 위대한 아버지에게서 위대한 아들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위대한 어머니에게서 위대한 아들이 나온 경우는 많다. 아버지가 위대하더라도 아들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선책으로 부인을 잘 만나든지.

47. 다음 각각의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사들, 사무엘(삼상 12:3-5, 23), 다윗(삼하 8:15)
-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원을 경험한 사사나, 왕들
-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단 6), 다윗(삼상 17:34-37)
-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단 3)
-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사울로부터), 엘리야(이세벨), 엘리사(여호람), 예레미야(여호야김)
-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기드온, 삼손, 에스더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요나단, 등등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왕상 17), 수넴 여인(왕하 4:17),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믿음으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는 없으나 마카비 2서에 예가 있다(어머니와 7 아들, 등).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예레미야(렘 20:2-7)

**믿음으로 찰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스테반, 이사야(외경 '이사야의 승전'에 따르면 르밧세의 치하에서 톱에 잘려 순교하였다고 한다)

48.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38, =세상이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음(39).

49. 39절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33절과 다른가?

3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함

33: 개인적인 작은 약속들: 크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다(13).

50. 40절의 '이'는 '이'란 말은 40절이 39절의 이유를 말한다는 뜻이다. 저희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우리(신약의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다.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생이 헛것이 되고 만다(=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 믿음의 선진들이 누리지 못한 것,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실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과 이미 오신 메시아를 품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51.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저들보다 뛰어나다는 뜻일까?

**끝나지 않은 믿음의 행렬에 우리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 자신을 계주의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여기고(12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볼 때) 이 믿음에 대열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역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앞서 간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

52.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복을 누리는 것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오히려 희생하고 순교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믿음을 따라 죽을 때는 죽을 줄 아는 것이다.

히브리서 12:1-13

1. 고난 가운데서 배교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히브리 독자에게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 두 가지는(1-13)?

- 1) 고난을 먼저 당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 2)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

2. 증인의 원어상 일차적인 의미는 관람자라고 한다. 보아야 증인이 되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누구이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앞 장에서 말한 선진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으니 더 잘 뛰자(1-4절의 핵심은 이것이다) 잘 뛰어간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더 잘 뛰자는 말이다.

3.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1-4)?

- 1)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 '믿음의 주'에서 '주'는 영어로 Lord(지배자, 주인)가 아닌 Author(창조자, 근원. 행 3:15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밀함)이다. 즉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Perfector)란 말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실천했고 완성했으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 2)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을 배우자(2, 예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 3) 그런 고난 뒤에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 4)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4. 믿음을 흔히 달리기예 비유하곤 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로 고대 로마 올림픽에서는 알몸으로 달렸다. 여자는 관중이 될 수 없었다)

무거운 것(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옷)을 벗어버린다. 몸이 가벼워야 한다. 죄를 벗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관중이 많아야 한다: FIFA는 북한의 관중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린 벌로 제 3국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하였다(2005년). 관중이 없는 것이 징계였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관중이 있다.

왜 달려야 하는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이거면 상급이 있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Fix our eyes on Jesus).

5.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봄으로:** 극심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지만 자신이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현될 것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셨다. 성도가 앞에 놓인 고통을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하는지 모범을 잘 보여주셨다.

6.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치욕을 참고 견디어, 피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3).  
결과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영광을 얻으셨다. 잠깐의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

7. 죄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한다면?

무거운 것(죄)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짐이며 얽매이기 쉬운 것(그로 인하여 더 큰 범죄나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아버린다)이다.

8. 히브리서 기자는 5:11-6:6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미성숙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찢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 아이라고 지적했다. 그와 맥이 통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4)**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9. 고난을 당할 때 기꺼이 참아야 할 이유는(5-13)?

- 1) 그것이 벌이 아니라 징계(=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증거다(7) 그것을 알면 매 맞고 난 후에 더욱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경우도 있다.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7절)는 말은 훈련처럼 어려움을 참으라는 뜻이다. 징계( )는 교육이나 훈련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아닌가(9)?
- 3) 훈련인 경우라면 유익이 있다(10-13) 훈련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견디어 낸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10.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심, 10)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음(11).

11. 하나님의 징계와 육체의 아버지가 주는 징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시지만 육체의 아버지(10절의 '저희')는 혹 자기의 뜻대로 (혹 잘못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수도 있다.

12.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달리는 도중에 퍼져버린 것처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훈련으로 말미암아 지친 상태). 그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시 힘을 내라는 것:** 남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을 내라는 뜻이다.

13.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저는 자를 고치는 방법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공동체가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잠 4:26의 인용인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70인 역은 단수로 된 '길'을 의도적으로 복수 형태로 인용하여 이런 뜻을 살렸다. 개역성경은 '길을 고치라'는 뜻이지만(공동체가 도와주라는 뜻) 대부분의 다른 한글 번역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어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니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스스로 주의하라는 뜻). 영역의 'make a straight path'는 길을 만들라는 뜻인가? 곧게 걸으라는 뜻인가? 개역만 길을 고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14. 저는 다리는 부정한 것이다(레 21:1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고치시고(마 15:30-31, 21:14, 행 3:2, 14:8) 잔치에 초대하신다(마 18:8, 눅 14:13, 21).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12:14~29**

15. 14절의 이것이란 거룩함을 가리킨다.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가?

**쓴 뿌리(신 29:18, 행 8:23), 더러움, 음행, 망령:** 쓴 뿌리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마음을 가리킨다.

16.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말한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그 화평의 바탕 위에 사람과의 화평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화평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17. 15-16절은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14절에 종속된 문장이다(NKJV에는 세 번의 *lest*가 사용되었음). 그렇다면 두려워(주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좇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이다.

18. 화평과 거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조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상호보완의 의미로 쓰였다:** 거룩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화평은 하나되는 것이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과도 구별되게 사는 일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거룩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도 구별, 즉 분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화평을 좇아야 한다. 학자는 원래 비판, 비평에 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장점을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하다. 두 개의 칼(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한 개의 날선 검을 가지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다.

19. 여기서 예서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짓을 한 자의 표본으로:**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예서가 눈물을 흘리며 매어 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일시적인(현세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가치(하늘의 복)를 잃어버리는 것.

21. 18절에서 '너희의 이른 곳'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삽입된 말이 길어져 버렸다.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가 아니라 어디라고 하는지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해보자.

**시내 산이 아니라 시온 산이다(22절):**

22. 다음의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만질만한 불붙는 산 ↔ 시온 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 시내산은 가까운 곳이었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아니다.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 천사들, 장자들, 교회, 하나님, 의인들의 영:** 시내산의 광경은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두려움을 주었다. 반면에 천상의 존재는 영적인 것이며 축재 분위기이다. 총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축재의 분위기를 가진 단어이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축재이었다. 시내 산

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두려움이었지만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감격 그 자체이다.

**돌로 침을 당하리라 ↔ 예수의 피:** 시내 산에서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죽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도달한 시온 산에서는 예수가 피를 흘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23. 원문은 18절을 ‘왜냐하면...’ 으로 시작한다. 18-24절이 14-17절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배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렇게 두렵거늘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를 거역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느냐(25절이 18-24의 요약이다)? 2:2-3과 같은 방식이다: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이렇게 큰 벌을 받았다면 그의 아들이 친히 전해준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벌을 받게느냐?

24. 18-21과 22-24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하도록 제목을 붙인다면?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차이점은 후자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만약 거역한다면 징벌도 그만큼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

25. 총회는 보통 지겨운 경우가 많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는 어떠할까? 거기서도 회장 선출하고 규약심의하고 그럴까?

**축제와 같은 성격의 총회(전체 모임):** 원문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번역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역본을 참고해야 한다. 개역의 ‘총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축하 행사’나 ‘대집회’로 번역할 수 있고 장자들보다는 천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표준새번역>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26. 그 때에는 땅만 진동하였는데 이제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27):**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시겠다는 것은 만든 것들을 변동시키겠다는 뜻이다(27). 다른 많은 역본들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는데 오역이다. 다시는 진동치 아니하는 존재로 변동시키실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든지, 영벌을 받든지.

## 히브리서 13 장

1. 본문을 근거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보자.

**관한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손님이란 학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성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성적인 범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물질적인 관심이 팽배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2. 박해와 고난이 가해질 때 어떤 생각이 도움이 될까?

1) 내게는 형제가 있다(1) 혼자 당하는 것보다 함께 당하면 훨씬 가볍다. 형제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난이 가벼워진다. 교회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2)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5-6)

3) 내게는 믿음의 스승(선배가)이 있다. 복음을 전해주고 죽기까지 복종한

4)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도 있다(8)

3.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한 권면의 결론이다. 몇 가지 주제로 권면하는가?

형제 사랑(1-3), 혼인(4), 재물(5-6), 지도자(7-9), 예배(10-16)

4. 형제 사랑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손님 접대하기, 관한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기

5.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가리킨다(창 18:3, 19:2)혹시 천사나 예수님을 대접할 지도 모르니까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말인가?

관한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었음, 그렇다면 손님이란 학대를 피해서 찾아오는 손님일 수 있음,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음. 원래 나그네가 성문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데려다가 재우고 먹여주어야 했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이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신 10:19) 동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6. 어떤 경우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클까?

**관음하는 일과 돈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만다.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일이다.

7. 관음이란 개인적인 문제인데 국가나 교회가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일이란 점이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란(4)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뜻이다. 노아 홍수의 원인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성적 문란이 주원인이다.

8.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이 악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신앙 때문에 직장이나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서의 권고이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요즈음 돈에 대한 욕심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물질을 축적하는 데에 있다. 선한 청지기로서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려면 노력하고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을까?)

9.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선언이 왜 튀어나왔을까(8)? 바로 앞뒤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앞의 7절은 바른 지도자를 따르라고 말하고 바로 뒤의 9절은 거짓 스승이나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8절은 예수가 바른 지도자의 표준이며 변함없는 진리의 표준이라는 뜻이다. 바른 지도자란 예수의 계승자이며 진리란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준 그 분들은 돌아가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분을 보고 그 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10.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합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은혜와 식물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11-12)

**식물:** 유대교의 제사제물과 그에 따른 의식을 가리킨다. 먹는 문제가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식물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11.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기름있는 부위는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전부 불살라 버리고 먹을 권이 없는 것(11)은 무슨 제사인가?

**속죄제(레 4:11-12):** 예수가 바로 이 속죄제의 제물이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ransom*)이었다.

12.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를 영문 밖에서 처형한 것은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진 밖으로 내어다 버린 그들의 관습 때문이다. 즉 영문 안은 거룩한 곳이고 영문 밖은 부정한 곳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더 이상 영문 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깨끗하게 해버린 영문 밖으로 가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자는 의미)

13.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사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란 말의 의미는?

같은 고난을 당하자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괴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는 뜻이다.

14.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면 능욕을 져야 한다. 기꺼이 능욕을 당할만한 값어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장차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편하거나 쉽지는 않은 길이 있음을 말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15.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자기 육체를 불사름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새롭게 생겨난 제사는 어떤 것인가?

**찬미의 제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요 제사이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런 제사가 등장하였었다(미 6:6-8).

16. 10절은 구약의 제사법이다. 11절은 영문 안팎의 차이를 말한다. 영문 안은 거룩하고 구원이 있는 곳이다. 12절은 예수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 구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찾아보자.

10절 구약의 제사법 ↔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가 등장함(15-16)

11절 영문 안은 거룩하고 구원이 있는 곳 ↔ 예수께서 가야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14절)

12절 예수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었다 ↔ 그 제물이 우리 것이 되도록 그에게로 가자(13).

그러니까 10-16까지 여섯 구절이 상관관계가 있다. ABC-CBA' 구조라고 한다.

17. 다음과 같은 관계는 그리 좋지 못한 관계이다. 어떤 관계로 바뀌어야 하는가?

지도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따라 달라.

학생: 선생님의 말이 맞으면 따라가고 틀리면 따르지 않는다.

지도자: 권위 혹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며,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고).

학생: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다.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도우라.

18. 20절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는 표현이 어디에 걸릴까(무엇을 수식하는 걸까)?

'죽은 자'에 걸린다고 볼 수는 없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이 죽은 자가 복수임을 의미한다. 원어상으로도 복수임). 예수에게 걸린다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뜻으로 가능하다. '양의 큰 목자'에 걸린다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가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아무튼 원어 자체가 다소 애매하므로 이렇게 의역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19.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못 하시겠는가? 히브리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원하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 앞에 즐거운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요 6:29).

음행: 음란한 행위, 도덕적으로 정상이 아닌 성적인 행위

간음: 부부가 아닌 사이의 성적인 행위

능욕(凌辱 능가할 릉): 업신여겨 욕보임, 강간하여 욕보임